

전 남

장흥~제주 뱃길 100만명 돌파

오렌지호 취항 22개월...음식·숙박 등 지역경제 시너지

장흥 노력함과 제주 성산항 구간을 운항하는 '오렌지호'가 취항 후 1년 10개월만인 18일 승선여객 누계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제이에이치 페리(구 장흥해운)는 지난 2010년 7월 2일 육지와 제주를 잇는 기존 선박과 차별화를 선언하며 초쾌속선 오렌지호를 투입, 기존 4~5시간 걸리던 운항시간을 1시간 50분대로 단축시키며 육지~제주 항로에 열풍을 일으켰다.

취항 후 현재까지 여객 100만명과 차량 16만대를 수송했다. 이를 통해 장흥군과 제주도 서귀포지역 경제 활

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렌지호'는 상대적으로 빠른 운항 시간과 경제적인 운임 제공을 통해 기존 선박과 항공을 이용했던 여행객들에게 제주도 여행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주)제이에이치 페리는 지난 3월 5일 4200t급 최신 대형 쾌속선 '오렌지 1호'(정원 825명·차량 80대) 투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오렌지호 운항으로 남부 해안권역이 관광과 해상운송의 메리트가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관광지 창출 및

코스 개발이 이뤄져 관광 활성화 등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내 음식, 숙박, 택시 등 서비스 분야에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군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행정력을 최대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이에이치 페리는 18일 100만번째 승선 여객에게 승용차를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오렌지호' 평생 무료 이용권과 지역 특산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분주한 들녘 한량 항로

지난 15일 강진군 차천면 들녘에서 논갈이가 한창인 가운데 왜가리와 황로떼가 파헤쳐진 논바닥 사이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여름철새인 황로는 머리와 목, 어깨 사이의 황색 깃털이 특징이다. (강진군 제공)

“서영암을 레저 복합산업 허브로”

군, 삼호읍 상업·관광레저 중점 新 발전계획 수립

영암군이 삼호읍의 급속한 도시화 진행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 비전을 위한 '서영암 신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마치고 체계적인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서영암 지역은 영암군의 핵심 지역으로 '영암 테크노폴리스'(대불국가산업단지)와 삼호 일반산업단지 등 조선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 도시(영암 F1경주장 등)가 추진 중에 있는 곳이다.

특히 목포대교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의 연결에 따른 접근성 제고에 따라 도시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서영암의 장기발전 미래상을 '동북아 레저 복합산업의 허브'

로 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1도심과 3부심으로 공간체계를 구성, 각 공간별 특성을 감안해 계획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서영암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워터프런트 지역은 상업·업무·주거 및 관광레저 기능을 중점 배치하면서 요트산업과 연계하는 장기 전략 방안이 제시됐다.

'영암 테크노폴리스'는 규모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는 평가와 함께 20년 전에 개발된 산업단지로 단지 내 상업용도에 대해서도 건축 제한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주여건 개선방안으로 현대 산호중공업 주변지역의 낮은 구릉지와 기존 마을 등을 연계하여 다양한

주거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확보방안이 제안됐다.

영암호 주변지역은 수변공간의 장점 등이 많아 고급형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적 조성방안도 함께 제시됐으며, 기존 삼호읍 시가지지역을 산단단지 배후 주거기능과 연계해 정비하는 한편 교육문제 해결방안으로 마이스터고 설립방안이 제시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서영암 신발전 종합계획은 서영암 지역의 장기적 도시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정책에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고 후속 과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확보를 위한 계획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이후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후 해군 제3함대 주변 정비사업 등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치유의 바람’이 분다

장흥군, 풍육장 '비비 에코토피아' 개장

장흥군은 19일 억불산 우드랜드 자락을 중심으로 대규모 편백 숲을 활용한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내에 '비비 에코토피아'(풍육장)를 개장한다.

'비비 에코토피아'는 전체 면적이 2ha로 토굴 3개소, 움막 8개, 원두막 7개, 평상, 벤치 등의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체험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풍육장 주변에 삼목수를 식재하고 대나무로 차폐막을 설치해 밖에서 이곳을 들여다 볼 수 없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종이 옷을 입고 입장하고, 입장료는 3000원이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토피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밝힌 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0부터 3년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치유의 숲'을 조성했다.

군은 인근 타 시·군과 차별화

된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우드랜드의 우수한 편백나무 산림자원을 이용한 복합 휴양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행 접근성 강화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말레길(무장애데크 길) ▲음이 발생 폭포·온욕장·편백나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접하도록 풍육장을 즐길 수 있는 '비비 에코토피아' 등을 갖춘 '치유의 숲' ▲목재 문화체험관, 건축·목공예 체험관 등을 갖춘 '편백숲 우드랜드' 등을 조성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새로운 휴식공간인 '비비 에코토피아'가 건강 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큰 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아열대 채소 '아티초크' 재배 성공

전남농기원, 무가운 1년 성과...소득작목 기대

중남미의 아열대 지역과 이탈리아 등지에서 연안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기능성 고급 채소인 '아티초크'를 전남지역에서 무가운(無加溫)으로 재배하는데 성공했다.

17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미국에서 '아티초크' 종자를 구입해 비닐하우스에서 난방을 하지 않고 시험재배한 결과 1년만에 첫 수확을 하게 됐다.

'아티초크'는 서양에서 우리나라의 무, 양파처럼 대량 소비와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화된 채소이다. 아티초크에 함유된 '씨나린'(cynarin)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신장과 간장의 생리대사 기능을 개선하거나 소변배출을 원활하

게 하는 이노신산도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티초크는 한번 심으면 5~6년 동안 수확이 가능한 작물로 제주도에서 소량 재배되고 있으나, 육지에서는 아직 재배되지 않고 있다. 원예연구소 송동호 박사는 "기능성 채소인 '아티초크'는 도내에서 무가운 하우스 재배로 유통이 가능해 점차 온난화되는 지역에 유망 소득작목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희기자 song@kwangju.co.kr



어린이 그림그리기 입상작 전시회

현대산호중공업 29일까지

현대 산호중공업이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김호민(무지개 2유치원), 김가은(삼호 중앙초등학교), 이수하(삼호 서초등학교) 등 3명의 어린이가 영예의 금상을 차지했다.

현대산호중공업은 지난 16일 한마음회관 3층 전시실에서 오병욱 사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상작 시상식과 전시회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금상·은상·동상·입선 등 54명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중부취재본부=문명선기자 moon@

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행복한 우리 가족'을 주제로 한 입상작 54점과 전시작 20점 등 총 74점을 선보인다.

현대 산호중공업 오병욱 대표이사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 향후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자 지역행사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청림교육 1번지’ 장성

전국 지자체 발걸 잇따라

장성군이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청림문화 체험교육'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장성 아카데미'에 이어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

장성군은 제주시 탐라교육원과 지난 15일 군청 상활실에서 교육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군과 탐라교육원은 공무원 및 교직원 교육에 있어서 청림교육 등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동 구축 운영과 체험활동 교육 정보, 인적자

원 교류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주에 제주시 탐라교육원과 부여군청 11기, 지방행정연수원, 중앙소방학교, 경상북도 교육연수원, 포항시청,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등 9개 기관 600명을 대상으로 청림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 청림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사회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4월말까지 36개 기관 5300여명이 장성을 다녀가 지역상가 이용과 농·특산물 판매로 1억4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yongho@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현 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구 대인동 소재)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땅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각 지역의 골포장 및 예식장을 금매매로 찾습니다.

매수 매도 대기중

30년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높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 전라남도 일원의 부자지가 높고 보장된 물건을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물건(경매, 공매)들을 안정되고 확실하게 고객님의 취향껏 정리해 드릴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를 가진 본 업체는 고객님의 고통을 이용해서 수수료나 몇푼 쟁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중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편 고객은 평등고객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지역의 사주나, 모텔, 오피스텔, 빌딩, 상가, 대지 등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조용히 상담해 주십시오. 소중한 재산 믿고 맡겨만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가 및 사무나 (매매)

지역 ■ 북구 삼거리 (사우나 현 상업중) 면적 ■ 대지 1900평, 건물 ■ 2500평

지역 ■ 칠천지구 일개동 (무인빌딩 공매) 면적 ■ 대지 ■ 338평, 건물 ■ 440평 객실 ■ 22실

지역 ■ 광천(미남) 부근 모텔하우스(사무기능) 면적 ■ 대지 ■ 191000평, 건물 ■ 2803평

지역 ■ 동산동 대지 314평 매매

지역 ■ 수원지구 롯데마트부근 빌딩상가 매매 및 분양 중

최상의 전월주택 부지 적함

지역 ■ 달랑 1만평~2만평이상 50평~10만평

지역 ■ 장성 1만평~5만평 (각 타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956-6660-010-2139-6255

오피스텔 매매

▶ 총 합계 : 보증금 8,250만원 월세 1,425만원

▶ 지하 핸드폰전시장 1

▶ 사무실 1, 10평 27.11평 67제, 13평 4

▶ 토지면적 : 509.09㎡(154P)

▶ 건축면적 : 1375.21㎡(416P)

▶ 매매가 12억 8천만원에서 대출금 5억 원과 보증금 8,250만원을 공제하면 실투자금 6억 9천 7백 오십만원으로 월세 1,425만원에서 대출금이자 6% 250만원을 공제하면 월수익 1,175만원으로 연투자수익 20%로 아주 우수한 투자입니다.

문의 : 011-684-3886

상가/원룸 매매

▶ 총 합계 : 보증금 4,500만원 월세 779만원

▶ 1층 편의점 원룸 21개, 투룸 4개

▶ 토지면적 : 330.58㎡(100P)

▶ 건축면적 : 737.19㎡(223P)

▶ 매매가 7억 4천만 (용자 2억 4천 4백 포함) 보증금 4천 5백만 원, 월세 8백만 원 용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4억 9천 원 월수익 678만 원 연수익을 18%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하면 월수익 1,000만 원 이상 가능함.

문의 : 011-684-3886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경매투자

- 실전경매 배우면서 수익 내실 분
- 실전투자법 / 회비 330만원
- 유차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투자자 모집 / 법적보장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입찰대리

- 확실하게 입찰 대리 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 매수 입찰대리 법원인가

오천경매 H.010-4667-9300

특이점 특허등록 : 3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법원경매정보대한민국대표사이트!

『법원경매』의 길잡이 다와옥션이 함께하는!

검색 | 다와옥션 | 검색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세요!
www.dawauction.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주택 / 근린시설

- ▷ 영광군 영평동 2층주거 상가주택 대지153평 건물900평 김정기2억 최자기1억1천만
- ▷ 남구 월산동 상업지역 근린시설 대지330평 건물400평 김정기2억4천만 최자기1억4천만
- ▷ 동구 지산동 자연복지 근린시설 대지260평 건물95평 김정기4억8천만 최자기2억5천만

단독주택

- ▷ 서구 농성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70평 건물81평 김정기2억4천만 최자기1억9천만
- ▷ 서구 화정동 2층주택 대지70평 건물56평 김정기1억8천만 최자기1억4천만

전원주택 부지 / 창고 부지

- ▷ 봉산면 대추리 관리지역 대지622평 김정기1억3천만 최자기16천4백만
- ▷ 관산구 임곡동 준주거지역 대지233평 김정기2억2천만 최자기1억2천만

토지매매

- ▷ 화순군 도곡면 도곡면청향향 4차선도로면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 무안군 신화리 농림지역 담 3,000평 매매1억5천만

☎ 문의010-4911-4989 (062-268-8949)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